

한국사(②형)

해설위원 : 장 원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이번 국가직 시험은 전년도에 비해 현장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체로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는 수험생들에게 아주 생소하고 낯선 문제를 몇 문제 포함시켜 문제풀이 능력을 묻고 있다. 대표적으로 변별력을 높인 문제를 꼽아보면 **의열단 문제(15번 문항)와 토지조사사업(20번 문항)**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코 만만하게 풀 수 없었던 **갑신정변(5번)**, **임진왜란(9번)**, **개화정책(16번)**, **전시과(18번)**, **고조선 문제(19번)** 역시 내용정리를 꼼꼼하게 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전체적인 출제 범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전근대사 13문항, 근현대사 7문항**으로 다소 근현대사 비중이 높아졌다. 이 부분(근현대사 비중 상승)은 향후 수험생들이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의 한국사 수업은 전근대사 50%, 근현대사 50%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결국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기에 앞으로의 공무원 시험에도 **근현대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국가직시험은 **정치사(10문항), 문화사(4문항), 경제사(3문항), 사회사(2문항), 기타(1문항) 순으로 출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공시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왔던 출제의 법칙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사와 문화사를 접목**시킨 문항이 늘고 있는 추세로서 이 부분 역시 수험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반응을 보았을 때 한국사 선생님들 역시 한결같이 어려웠다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은 분명 예년보다 상승할 것이기에 85점 이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향후 한국사 수험 대비는 역시 한결같다. 우선 한국사에 등장하는 **역사 용어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용어가 생소하면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후 단순 암기(=나무)가 아닌 전체적인 흐름(=숲)을 보기를 권한다. 먼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수험생들에게 처음 한국사의 큰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책을 권한다면, 예전 **7차 교육과정의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천한다. 이번 문제에도 역시 비교적 쉬운 문제들은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를 구매하기 힘든 수험생들은 윌비스학원 2층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린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상승하였다고 해서 기존 수험생들은 새로운, 난해한 주제, 심화학습 등을 따로 해 두어야 하나~ 라는 걱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방법은 전혀 고민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기존 본인의 공부 방법을 믿고 늘 해왔던 것처럼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공부하기를 권한다. 공무원 한국사는 결코 전공 논문 수준을 묻지 않는다. 결국 한국사의 기본 지식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가직에서 다소 실망한 수험생들이 있다면, 일회일비하지 말고 지난 것은 빨리 잊고 이어지는 서울시·지방직 시험을 목표로 뚜벅 뚜벅 걷기를 권한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준비해 왔던 모든 수험생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과 함께 수고했음에 진심어린 박수를 보내며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도한다.

- 윌비스학원 한국사 장원 선생 -

문 1.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은(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 때 편찬되었다. 본기 28권, 연표 3권, 지 9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은(는) 충렬왕 때 한 승려가 일정한 역사서술 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저술한 역사서이다. 총 5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 설화와 불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 ① (가) - 고조선의 역사를 중시하였다.
- ② (가) -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하였다.
- ③ (나) - 민족적 자주의를 고양하였다.
- ④ (나) - 도덕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출제영역 : 중세 문화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난이도 : 下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의 (가)는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기전체로 쓴 「삼국사기」이고, (나)는 고려 후기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이다. 김부식은 신라 계승 의식을, 일연은 고조선 계승의식을 각각 표방하였다. 고려는 무신정변 이후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 민족적 자주의를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편찬된 대표적인 사서는 「동명왕편」(이규보), 「해동고승전」(각훈), 「삼국유사」, 「제왕운기」(이승휴) 등이 있다. ① 「삼국유사」에 관한 설명이다. ②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편」이다. ④ 「삼국사기」에 관한 설명이다.

문 2.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즉위하여 정방을 폐지하고 사림원을 설치하는 등의 관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권세가들의 농장을 견제하고 소금 전매제를 실시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 ① 만권당을 통해 고려와 원나라 학자들의 문화 교류에 힘썼다.
- ②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로 개편하여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 ③ 철령 이북의 영토 귀속 문제를 계기로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 ④ 기철을 비롯한 부원 세력을 숙청하고 자주적 반원 개혁을 추진하였다.

□출제영역 : 중세 정치 - 충선왕의 업적

□난이도 : 下

□정답 : ①

□해설 : 고려 충선왕의 개혁 정치를 나열하고 있다. 충선왕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정방을 폐지하고, 한림원을 강화하여 왕명 출납과 인사기능을 담당하는 사림원을 설치하였다. 또한 원나라 연경의 자신의 저택에 학문 연구 기관인 만권당을 설립하여 이체현과 원나라 조맹부 등을 초빙하여 학문 교류에 노력하였다. 또 각 주현에 의염창을 설치하고 각염법을 제정하고 소금 전매제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② 충렬왕 당시, ③, ④ 공민왕 당시의 사실이다.

문 3.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 ①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 ②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본다.
- ③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 ④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검토해 본다.

□출제영역 : 역사의 의미

□난이도 : 下

□정답 : ①

□해설 : 제시문은 주관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다. ① 객관적인 역사의 의미이다.

문 4. 다음 결정문에 근거하여 실행된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을 독립시키고 민주국가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혹한 일본의 조선 통치 잔재를 빨리 청산하기 위해 조선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 ① 마·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② 서울에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 ③ 유엔 감시 하에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④ 한반도에서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출제영역 : 현대 정치-모스크바 3상 회의

□난이도 : 下

□정답 : ①

□해설 : 제시문은 1945년 12월 합의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내용이다. 이 합의문에 따라 미국과 소련의 대표에 의해 두 차례의 마·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결국 이 위원회는 결렬되었다.

문 5. 밑줄 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5명의 개화당이 사건을 일으켜서 나라를 위태롭게 한 다음 청나라 사람의 억압과 능멸이 대단하였다. ... (중략) ...
종전에는 개화가 이롭다고 말하면 그다지 싫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이후 조야(朝野) 모두 ‘개화당은 충의를 모르고 외인과 연결하여 매국배종(賣國背宗)하였다’고 하였다.
- 윤치호일기 -

- ① 정동구락부 세력이 주도하였다.
- ② 일본군과 함께 경복궁을 침범하였다.
- ③ 차관 도입을 위한 수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 ④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일본군이 청군에 패퇴하였다.

□출제영역 : [근현대사] 근대 정치-갑신정변

□난이도 : 中

□정답 : ④

□해설 : 제시된 사건은 김옥균 등 급진 개화파가 주도한 갑신정변이다. 김옥균은 당시 일본군의 지원 약속을 받았으나 1,500명의 청군이 진출하자 일본군은 곧바로 철수하였다. 또한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기도 하였다. 결국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등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① 아관파천 이후 정동파 친러 내각은 근대적 개혁의 식견을 얻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 중이던 서재필을 귀국시켜서 독립협회를 결성하게 된다. ② 동학 농민 운동이 발발하여 전주를 점령하자 정부는 청나라의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 텐진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군도 조선에 파병되었다. 이후 전주화약이 체결되자 조선 정부는 철병을 요구하지만 일본군은 경복궁을 침범하는 갑오왜변을 일으킨다. ③ 김옥균은 1883년 6월 국왕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 번째 일본에 건너가서 국채(國債)를 모집하려 하였다. 그러나 뮐렌도르프와 민씨 수구파의 사주를 받은 주조선 일본공사 다케조에가 그가 휴대한 고종의 국채위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본국에 허위 보고하였다. 이로써 국채 모집은 완전히 실패하고 1884년 4월 귀국하였다.

문 6. 개항기 체결된 통상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일 통상장정(1876)-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 규정이 합의되었다.
- ② 조청 수륙무역장정(1882)-서울에서 청국 상인의 개점이 허용되었다.
- ③ 개정 조일 통상장정(1883)-일본과 수출입하는 물품에 일정 세율이 부과되었다.
- ④ 한청 통상조약(1899)-대한제국 황제와 청 황제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체결하였다.

□출제영역 : [근현대사] 근대 전개기의 정치-개항기의 각종 조약

□난이도 : 下

□정답 : ①

□해설 : 1876년 음력 2월 (조·일) 수호조규에 의해 조선은 개항을 하였고, 이 조약에 근거하여 같은 해 음력 7월에는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조·일)통상장정(=무역규칙)이 각각 체결되었다. (조·일)수호조규 부록의 핵심내용은 개항장에서의 일본인의 활동지역(=간행이정)을 10리로 제한하고, 일본 화폐로 조선의 물화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일)통상장정(=무역규칙)은 무관세와 무제한 쌀 수출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1883년 (조·일)통상장정은 개정되어 관세납부, 방곡령 시행, 최혜국 대우 조항이 신설되었다.

문 7. (가)~(라)의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다)	(라)	
	↑	↑	↑	↑	↑
	기원전 18년 건국	475년 웅진 천도	538년 사비 천도	660년 사비성 함락	665년 문무왕과 회맹

- ① (가)-관동제를 정비하고 공복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 통치체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 ② (나)-남쪽의 마한 잔여 세력을 정복하고, 수군을 정비하여 요서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 ③ (다)-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 일부 지역을 수복했으나 얼마 후 신라에게 빼앗겼다.
- ④ (라)-복신과 도침 등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켜 사비성의 당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출제영역 : 고대 정치-백제 국왕의 업적

□난이도 : 下

□정답 : ②

□해설 : 제시된 표의 (가)시기는 한성 시대이다. ① 3세기 고이왕 당시, ② 4세기 근초고왕 당시로 (가)시기의 사실이다. (나)는 웅진시대이고, (다)는 사비시대이다. ③ 6세기 성왕 당시, ④ 멸망 후 부흥운동 전개 당시이다.

문 8. 다음 자료에 나타난 통일신라시대의 신분층과 연관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동(奴僮)이 3천 명이며, 비슷한 수의 갑병(甲兵)이 있다. 소, 말, 돼지는 바다 가운데 섬에서 기르다가 필요할 때 활로 쏘아 잡아먹는다. 곡식을 남에게 빌려 주어 늘리는데, 기간 안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아 부린다.
- 신당서 -

- ① 관등 승진의 상한은 아찬까지였다.
- ② 도당 유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③ 돌무지덧널무덤을 묘제로 사용하였다.
- ④ 식읍·전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였다.

□출제영역 : 고대 사회-신라 신분제도

□난이도 : 下

□정답 : ④

□해설 : 제시문은 통일신라 시대 귀족들의 경제적인 특권을 보여주고 있다. ④ 신라는 공로가 있는 귀족들에게 식읍과 전장(田莊=농장) 등을 지급하였다. ①, ② 6두품에 관한 사실이다. ③ 통일 이전의 묘제이다. 신라는 통일 이후 화장법과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났다.

문 9. 임진왜란 때의 주요 전투를 벌어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ㄴ. 조선과 명나라 군대가 합세하여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ㄷ. 진주목사 김시민이 왜의 대군을 맞아 격전 끝에 진주성을 지켜냈다.
ㄹ.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의 수군을 격퇴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다.

- ① ㄱ→ㄴ→ㄷ→ㄹ
- ② ㄱ→ㄷ→ㄴ→ㄹ
- ③ ㄹ→ㄴ→ㄷ→ㄱ
- ④ ㄹ→ㄷ→ㄴ→ㄱ

□출제영역 : 근세 정치-임진왜란의 과정

□난이도 : 中

□정답 : ④

□해설 : 제시문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ㄹ. 한산대첩(1592. 7) → ㄷ. 1차 진주성 전투(1592. 10) → ㄴ. 평양성 전투(1593. 1) → ㄱ. 행주대첩(1593. 2)의 순서이다. 의외로 다소 체감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1차 진주성 전투는 김시민과곽재우가 일본군을 막아내지만, 이듬해 6월 2차 진주성 전투에서는 김천일이 패하였다.

문 10.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물로 바칠 벌꿀 한 말의 값은 본래 목면 3필이지만, 모리배들은 이를 먼저 대납하고 4필 이상을 거두어 갑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을 시행하면 부유한 양반지주가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가난한 농민이 원망한다는데, 농민의 원망이 훨씬 더 큼니다. 경기도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충청과 호남 지역에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 ① 토지 결수를 과세 기준으로 삼았다.
- ② 인조 때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였다.
- ③ 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왕실에 대한 진상은 계속되었다.
- ④ 이 법을 시행하면서 관할 관청으로 선혜청을 설치하였다.

□출제영역 : 근대 경제-대동법
□난이도 : 下
□정답 : ②
□해설 : 제시문은 민호 단위로 현물을 징수하던 공납이 토지 결 수 단위로 마포·전으로 징수하는 대동법에 관한 사실이다. ② 대동법은 광해군 즉위 초인 1608년 이원익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문 11. 밑줄 친 ‘왕’ 때의 사실로 옳은 것은

○ 왕 재위 2년에 전진 국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내며 불상과 경문을 전해왔다. (이에 우리) 왕께서 사신을 보내 사례하며 토산물을 보냈다.
○ 왕 재위 5년에 비로소 초문사를 창건하고 순도를 머물게 하였다. 또 이불란사를 창건하고 야도를 머물게 하였다. 이것이 해동 불법(佛法)의 시작이었다.

- 삼국사기 -

- ① 역사서인 「신집」을 편찬하였다.
- ② 진흥 제도로 진대법을 도입하였다.
- ③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설치하였다.
- ④ 왜에 종이와 먹의 제작 방법을 전해 주었다.

□출제영역 : 고대 정치-소수림왕
□난이도 : 下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은 북조로부터 불교를 수용한 고구려 소수림왕의 업적이다. 소수림왕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태학 설립(372), 불교 수용(372), 율령 반포 등을 꼽을 수 있다. ① 7세기 영양왕 당시, ② 3세기 고국천왕 당시, ④ 7세기 영양왕 당시 답정이 전하였다.

문 12. 1920년대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중교 계통 인사들이 신민부를 결성하였다.
- ②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③ 민족 유일당운동의 일환으로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 ④ 한국독립군이 한·중 연합작전으로 동경성에서 승리하였다.

□출제영역 : [근현대사] 일제시대 무장투쟁사
□난이도 : 下
□정답 : ④
□해설 : ④ 일제가 만주사변(1931)을 일으키자, 한·중 연합작전이 전개되어 한국독립군은 중국호로군과 함께 쌍성보, 경박호, 사도하자, 동경성, 대전자령 전투를 승리하였고, 조선혁명군은 중국의용군과 함께 영릉가, 홍경성 전투 등을 치렀다. ① 1925년 무렵, ② 1920년 6월, ③ 1929년의 사실이다.

문 13. 다음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점 썩어가서 돈 있고 힘 있는 백성들이 갖은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 간사한 아전과 한통속이 되어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幼學)이라 칭하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 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하기도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의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다.

- 일성록 -

- ① 사족들이 형성한 동족 마을이 증가하였다.
- ②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로 변질되었다.

- ③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제소가 설치되었다.
- ④ 부농층이 관권과 결탁하여 향임직에 진출하였다.

□출제영역 : 근대 사회-향촌 사회의 변화
□난이도 : 下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은 조선 후기의 향촌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③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하여 거점품관으로 서울에 경제소를 설치한 것은 「태종실록」에 처음 보이는데, 1435년 대폭 정비, 강화하여 제도화한 것이다.

문 14.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곧 모친상을 당하여 3년간 상복을 입었다. 삼년상이 끝나고 관직에 복귀하였으나 을사사화 등으로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이내 관직 생활의 뜻을 접고, 1546년 40대 중반의 나이에 향리로 퇴거하여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이후 경상도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이 창설한 백운동 서원에 대한 사액을 청원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이 조선 왕조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이다.

- ① 서리망국론을 부르짖으며 당시 서리의 폐단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 ② 아홉 차례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하여 ‘구도장원공’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 ③ 주희의 성리설을 받아들였으며, 이기철학에서 이(理)의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 ④ 우주자연은 기(氣)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는 영원불멸하면서 생명을 낳는다고 보았다.

□출제영역 : 근세 정치-이황
□난이도 : 下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 중 소수서원을 사액하게 하였다면 (퇴계) 이황이다. 이황은 이언적과 함께 대표적인 주리론자이다. ① (남명) 조식은 68세 때인 1568년에 올린 『무진봉사』에서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을 펴 서리의 작폐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② (율곡) 이이에 관한 설명이다. ④ 주기론자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화담) 서경덕을 꼽을 수 있다.

문 15.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이족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①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 ② 경성 부민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일본 제국의회와 황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 ④ 임시정부 요인과 제휴한 투탄 계획을 추진하였다.

□출제영역 : [근현대사]-의열단
□난이도 : 上
□정답 : ②
□해설 : 제시문은 1923년 신채호가 쓴 의열단 선언문의 일부이다. 1919년 만주 길림에서 조직된 의열단은 1920년대 무렵 활발한 활동을 보이다가, 1928년 10월 ‘조선의열단중앙집행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창단9주년기념성명>을 계기로 계급적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급진적 민족주의 내지 사회주의노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② 부민관(府民館)은 경성부가 경성에서 강연회라든가 연구·영화·음악·무용 등을 공연할 만한 공연장지의 필요성에 따라 경성전기주식회사의 기부금으로 태평로 1가에 세운 극장이다. 부민관 폭파의거는 1945년 7월 24일 친일단체인 대의당이 내선일체와 황민화를 앞세워 태평양 전쟁에 젊은이들의 참여를 선동하기 위해 개최한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막기 위해 20세 안팎의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등 독립투사들이 친일파와 일본 고위관료들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다. 일본이 패망하기 전 마지막 의열투쟁이다. ① 의열단을 조직한 김원봉을 중심으로 좌우인사들이 모여 1935년 민족혁명당을 조직하였다. ③ 1924년 1월 5일 의열단원 김지섭(金祉燮)에 의해 동경 니주바시(二重橋)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 의거는 일본 천황이 사는 궁성을 파괴하고자 한 것이다. ④ 의열단은 파괴대상으로 조선총독부, 동양척식회사, 매일신보사, 각 경찰서, 기타 왜적 중요기관 등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관 및 그 관련기관의 시설에 대한 폭파를 목적으로 하였다. 의열단은 위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우선 폭탄제조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별동대인 구국모험단의 김성근(金聲根)을 길림으로 초빙하여 상하이에서 익힌 폭탄제조법의 기술을 단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다. 상당히 난해하고 지역적인 선택지가 있어 수험생들이 당황하였을 문제로 생각된다.

문 16.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추진한 정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 사람들이 조계지를 지키지 않고 도성의 좋은 곳에 있는 집은 후한 값으로 사고 터를 넓히니 잔폐(殘廢)한 인민의 거주지가 침범을 당한다. 또한 여러 해 동안 도로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집들이 줄어들었다. 탑동(塔洞) 등지에 집을 헐고 공원을 만든다 하니 ... (중략) ... 결국 집 없는 사람이 태반이 될 것이다.

- 매일신문 -

- ① 경운궁을 정궁으로 삼았다.
- ②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민족계 은행을 지원하였다.
- ③ 중추원을 개조하여 우리 옛 법령과 풍속을 연구하였다.
- ④ 한성전기회사를 통하여 서울에 전차노선을 개통하였다.

□출제영역 : [근현대사]- 근대 신문(매일신문)
□난이도 : 中
□정답 : ③
□해설 : 제시된 신문인 매일신문은 1898년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이다. 사장에는 양홍묵, 기자는 이승만·최정식 등이 참여하였다. 계속된 재정난으로 결국 1899년 4월 4일자(제279호)를 중간호로 내고 1년 3개월 만에 폐간되었다. ③ 1910년 10월 설립된 중추원은 설립 당시에는 총독의 자문에만 응했으나, 이후 관제 개정에 따라 한국의 옛 관습 및 제도를 조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친일 '귀족', 친일유지들을 화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직책에 불과하였다. ① 고종은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궁하면서 경운궁이 정궁의 역할을 하였다. ② 민간은행인 한성은행(1897), 천일은행(1899), 한일은행(1906) 등이 설립되었다. ④ 전차가 개통된 것은 1898년의 사실이다.

문 17. 밑줄 친 '이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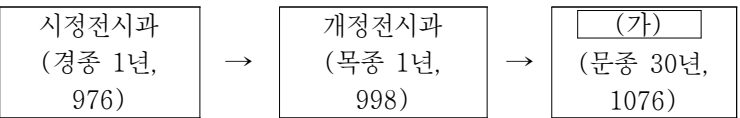
신라 말기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들이 중국에서 유행한 이 사상을 전하였다. 이는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주택·묘지 등을 선정하는, 경험에 의한 인문 지리적 사상이다.

아울러 지리적 요인을 인간의 길흉 화복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자연관 및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다.

- ① 신라 말기에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었다.
- ② 신라 말기에 호족이 자기 지역의 중요성을 자부하는 근거로 이용하였다.
- ③ 고려시대에 묘청이 서경 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활용하였다.
- ④ 고려시대에 국가와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초제로 행하여졌다.

□출제영역 : 고대 문화-풍수지리 사상
□난이도 : 下
□정답 : ④
□해설 : 제시문은 풍수지리설이다. ④ 초제는 도교행사이다.

문 18. 전시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 제도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 ㄱ.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었다.
- ㄴ. 산직(散職)이 전시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 ㄷ. 등급별 전시의 지급 액수가 전보다 감소하였다.
- ㄹ. 무반과 일반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출제영역 : 중세 경제-전시과
□난이도 : 中
□정답 : ④
□해설 : 제시문의 (가)는 경정 전시과이다. ㄱ. 시정전시과는 분급기준으로 관품(官品)과 인품(人品)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분급대상을 보면, 자·단·비·녹색의 사색공복(四色公服)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단삼은 문반(文班)·잡업(雜業)·무반(武班)으로, 비삼·녹삼은 문반·잡업으로 나눈 뒤 5·8·10·18품으로 세분해 토지를 분급하였다. 그러나 결국, 신구세력을 타협하여 정국의 안정을 모색하던 고려 경종의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 시정전시과에서 인품을 분급의 기준으로 지급되었다. ㄴ. 경정전시과부터 산관(散官)이 분급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현직관리를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ㄷ. 전체적으로 지급 액수가 감소되었는데, 시지의 감소율이 더욱 컸다. ㄹ. 무관에 대한 차별대우가 사라지고, 군인에 대한 대우도 이전보다 나아졌다.

문 19. (가)와 (나) 시기 고조선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	(나)	
	↑	↑	↑
기원전 2333년 단군의 등장	기원전 194년 위만의 집권	기원전 108년 왕검성 함락	

<보 기>

- ㄱ. (가)- 왕 아래 대부, 박사 등의 직책이 있었다.
- ㄴ. (가)- 고조선 지역에 한(漢)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 ㄷ. (나)-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며, 중계 무역의 이득을 취하였다.
- ㄹ. (나)- 비파형동검과 고인돌의 분포를 통하여 통치 지역을 알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출제영역 : 선사시대-고조선
□난이도 : 中
□정답 : ①
□해설 : ㄱ(○). 고조선은 건국이후 기원전 3세기 경 부왕-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고, 왕 아래에 상, 대신, 대부, 장군, 박사, 도위 등의 관직을 두었다. ㄷ(○). 위만은 철기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중계무역으로 강성해져 갔다. 이것은 한나라의 침략의 빌미가 된다. ㄴ(×). 기원전 128년 예(濊)의 왕 남려(南閼)가 30여 만명의 주민을 이끌고 한나라에 투항하자 한나라는 그 지역에 창해군을 설치한다. ㄹ(×). 고조선 초기 영역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문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 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하도록 하였다.
- ②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 ③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 ④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출제영역 : [근현대사] 일제 경제-토지조사사업
□난이도 : 上
□정답 : ②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일제시대 시행된 토지조사사업(1910~18)이다. 당시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소유자에게 지정된 기간 내에 자신의 토지의 주소, 소재, 지목, 등급, 지적, 결수 등을 신고하게 하였다. 미신고 토지는 몰수하였다. ① 토지만 해당되었다. ③ 일제는 1914년 근대적 토지소유권에 근거한 지세 납부를 규정하며 지세령(地稅令)을 공포하였다. 그 후 1918년 토지조사사업이 완결되어 토지 각 필지의 절대면적과 지주

가 파악되고, 토지등급이 결정되면서 그에 따라 지가가 결정되자 지세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토지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지방에 따라 다양하던 지세율은 일률적으로 13/1,000(1.3%)으로 확정되었고, 과세지는 286만 7,000정보에서 424만 9,000정보로 48.2% 증가되었다. 이 지세령은 미군정하에서 폐지되었다. ④ 근대적 등기제도는 1906년에 공포, 시행된 <토지가옥증명규칙>에서 비롯된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1906년 시행세칙이 나왔는데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나 가옥을 매매, 증여, 교환, 전당할 경우에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통수나 동장에게 인증을 받은 뒤 다시 부윤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면,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여부, 당사자의 능력, 부동산의 동일성, 계약의 유효성 등을 심사하고 틀림없다고 확인된 경우에, 비치한 토지가옥증명부에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였다.